

다케노미치

‘다케노미치’(대나무 길)라는 이름이 붙은 이 1.8km의 오솔길은 대숲으로 유명한 니시야마 산의 자연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2000년에 정비된 것인데, 길을 따라 8종류의 전통적인 대나무 울타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안내판에는 대나무 울타리 사진과 일본어·영어 설명 외에 어느 종류의 울타리를 어디서 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대나무가 건축 자재로서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과 장인들이 수 세대에 걸쳐 계승해온 대나무 울타리 만들기 기술을 실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고훈가키는 대나무로 엮은 격자를 뒤편에 있는 데라도오쓰카 고분의 형상에 맞추어 반원형으로 구부린 대나무로 감싼 것이 특징입니다. 가구야가키는 가는 대나무 가지를 촘촘한 밀도로 늘어놓고 그 사이에 정확히 자른 굵은 대나무를 배열한 것으로서, ‘현존하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라고 하는 『다케토리 모노가타리』(대나무꾼 이야기)의 등장인물 가구야히메가 입은 궁정 의상의 옷깃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즈메가키는 대나무가 종횡으로 잘 조합된 형상으로서 북동쪽에 성터가 남은 모즈메성의 성벽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대나무 울타리 건너편에도 키가 큰 대나무가 왕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다케노미치에는 고요하고 평온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10월에는 길을 따라 대나무 사방등이 설치되어 밤의 풍경을 환상적으로 밝혀줍니다.

대나무에 대해 흥미가 생긴 분은 다케노미치 중간쯤에 있는 ‘교토시 라쿠스이 지쿠린 공원’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넓은 부지 내에 대나무에 관한 다양한 전시를 하는 자료관과 약 110종의 대나무가 있는 정원, 그리고 대나무 제품과 기념품을 판매하는 숍 등이 있는 복합시설입니다.